

## ■ 2025년 길위의인문학 연속지원 심의 총평

- 심의회의명 : 2025년 길위의인문학 연속지원 심의
- 회의일시 : 2026년 1월 22일(목) 14:00 ~ 16:00
- 회의장소 : 외부 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태유, 노재정, 박미숙, 성낙경, 이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인문학이 특정한 공간이나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비롯한 생활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공간 자원을 인문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강연과 탐방, 대화와 성찰의 과정을 결합함으로써 참여자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세계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문화 향유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인문적 질문을 통해 자신과 타인,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인문학을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로 확산시키는 것, 그것이 길 위의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온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연속지원 심의는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평가(정성 50%), 사업 이행 현황 및 협조도 평가(정량 50%)를 통해 1차로 상위 30%를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026년 연속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상위 20%를 선발하기 위한 2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인문 가치 확산 노력(50%), 지역 인문자원 연계성(30%), 사업모델 선도성(20%)이라는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사전 서류검토(실적보고서)를 거쳐 대면 심의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 심의 대상 138개 프로그램 가운데 100개 프로그램을 연속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당일 논의를 통해 인문정신 확산이라는 사업의 본질적 목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에 둔 평가 체계를 마련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이 인문적 사고를 기반으로 기획되었는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체험 위주 구성에 머물지 않고 참여자의 사고 전환과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더불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인문자원이 프로그램 전반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는지, 참여자에게 어떤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는지, 운영 기관과 담당자가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했는지도 주요 평가 요소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별 요소를 나누어 점검하기보다, 프로그램 전체가 하나의 인문적 경험으로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으로 몇 가지 중점적인 관점을 추가로 합의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성이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가 사유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다. 프로그램이 지역의 공간과 이야기를 통해 인문적 질문을 생성하고, 참여자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또한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머무르기보다, 토론과 탐색의 과정에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이주 배경 시민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하기 위한 고민과 시도가 있었는지,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가장 안전한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각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맞게 강의와 탐방이 균형 있게 배치되었는지, ESG 경영의 가치가 운영 전반에 반영되었는지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결국 문화시설과 담당자가 이 사업을 얼마나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기획했는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는 참여자가 인문적 가치를 체득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참여자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이후에도 모임이나 활동이 이어지며 인문적 사유가 확장된 사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강사의 인지도나 외형적 완성도보다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강사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시설이 주도적으로 기획의 방향을 설정했는지도 주요한 선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부 관행적인 구성이라 하더라도, 인문적 밀도와 성찰의 깊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연속지원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인문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시설과 담당자, 강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사업이 참여자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이 기존에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인문 가치 확산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보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결과물 중심의 운영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기관의 고민보다 강사가 제안한 커리큘럼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여자 수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안전한 대상과 방식만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 번쯤 성찰해 볼 지점이다.

길 위의 인문학은 정답을 제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사유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인문정신 가치 확산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때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실험’을 감수하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 AI 등 동시대적 주제를 다루려는 시도 역시 의미 있으나, 기술을 익히거나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문적 사고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길 위의 인문학은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삶의 길 위에서 인문학이 작동하는 장으로 이 사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